
하나님의 신비들

The Mysteries of God

by

Don Fortner

(옮김: 박영호)

© 2010

1 하나님의 신비들

고린도전서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신비”라는 말은 알려지지 않은, 아마도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인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비밀스럽거나 숨겨진 것을 가리킨다. “신비”는 보통 지식을 억누르는데 수반한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신비”라는 말은 신성하게 계시된 진리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비는 감추어져 있거나, 혹은 율법의 예표들과 그림자들과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단지 부분적으로 계시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다. 신비는 천연적인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계시되었다. 신약에서 신비는 신성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려질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심오하고 영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연구하는데 이를 때 우리는 신성한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계시된 이 신비

들은 가장 심오한 우주의 진리이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이것들은 신뢰와 확신과 기쁨과 평강의 문제이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마 13:11)고 선포하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들이 세상에게는 가장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복음 진리의 방면들이다. “신비”라는 말은 신약에서 스물두 번 사용되며, “신비들”은 다섯 번 사용된다. 그러나 신약에 계시된 모든 신비들은 일곱 가지 특징적인 항목들로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곱 가지의 일반적인 개요를 보게 될 것이다. 다음 공과들에서 이들 신비들의 각각을 학습할 것이다.

경건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16에서 언급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가리킨다. “경건”이라는 말은 헌신을 단순히 의미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는 자의 헌신과 전념과 위임은 믿지 않는 자와 종교적 위선자에게 신비이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광신주의라 부르고 우리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른다. 그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요일 3:1). 믿는 자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에 대한 위임을 고무

하고 격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은 경건의 신비,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께 대한 우리의 헌신의 신비가 우리 대속물이고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라고 선포한다. 여기서 스스로 그분께 헌신하는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은혜롭게 강요하고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섯 가지 사항들이 있다.

1.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심으로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대속물과 대표자로서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려 한 것이다 (사 7:14; 9:6-7; 마 1:21; 요 1:14; 갈 4:4-6).
2. 우리 구원자는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을 낳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모든 자격을 정당화하였던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분은 우리 주의 침례에서 그렇게 하셨다(마 3:13-17). 그분은 오순절 날에 그렇게 하셨다(행 2:33-36). 성령은 사도시대의 기적들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증인을 낳았고 그분의 자격을 정당화하였다(히 1:3). 그분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행하신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 주님의 칭의에 대하여 말하

고 있다. 그분이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던 분인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3.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신 그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여지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탄생 때 그분을 경배하였으며, 광야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보살피셨으며, 그분이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죄가 되셨고, 그리고 갈보리에서 고통 받고 죽으셨던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오늘날 영광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가운데 말씀 사역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시기까지 한다(벧전 1:12; 엡 3:10).
4.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에 오르고 높여진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고 구원하는 복음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남녀들이고 세상의 가장 비참하게 타락한 자들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전파된다(요 3:16-17).
5.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을 세상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전해졌다.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 가운데 믿은바 된다.”** 경이 중의 경이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천하고 비참한 자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다. 실로 이것은 모든 참된 거룩과 헌신과 위임의 기초이며 동기이다.

6. 그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할 일을 모두 마치셨을 때,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체현되신 분은 **“영광 속으로 받으신바 되었다.”**

그분은 영화롭게 된 몸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일으켜지셨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이 영광 안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분은 거기서 우리의 대표자와 선주자로서 받아들여지셨다(히 6:20; 9:12). 그분은 영광으로 관 씌워지셨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은 그분께서 대신하여 사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모든 자들을 위한 영광의 모든 충만을 잡으시며 중재를 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의 헌신은 광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롬 12:1-2; 고전 6:19-20).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모든 충만의 구속자에 대한 헌신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한 것은 거룩의 신비이다!”**

믿음의 신비(딤후 3:9)는 복음의 교리이다. 목회자는 반드시 순수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신비를 붙잡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믿음의 신비를 “**복음의 신비**”라고 에베소서 6:19에서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추측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를 보내셔서 선포하도록 한 전갈이다(엡 6:20). 아주 단순하게 해서,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는 대속물에 의한 죄인들의 구원이다. 그것은 죄인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공로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한 속죄와 화해와 평강과 용서와 칭의와 의와 성화와 영생의 계시이다.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는 대속물이다! 세상의 똑똑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자기의 종교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치는 돌이고 범법의 바위이다. 하지만, 각각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우리 대속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보고 발견한다(갈 3:13; 고후 5:21; 히 9:12; 고전 1:30-31).

영적 연합의 신비(엡 5:30-32)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혼의 격려가 되고 기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연합보다 더 심오하고 더 복된 것은 없다. 이 연합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된 연합이고 기

뿐 것이다. 우리는 대표로서(엡 1:6), 영적으로(엡 4:4), 신비적으로(엡 1:22-23),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우리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그분과 하나이다. 그분은 몸 안에 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다(골 1:27). 그분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없이 그분은 완전하지 않으시다. 그렇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충만이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하나였으며(엡 1:6), 언제나 그럴 것이다(롬 11:29). 우리는 완전하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요 17:21-26).

섭리의 신비(롬 11:25-26; 엡 3:3-9)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비탄과 시험과 고난들에 직면한 것과 같은 우리 마음을 확신시키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섭리의 신비이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처리하시고 배치하신다(롬 8:28).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를 일으키시고, 바로와 이집트를 멸망케 하신 것처럼, 세상 전체를 통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멸망시키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어떤 자들로부터 복음을

감추시므로 공흠 가운데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계시하실 것이다 (마 11:25-26).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땅에서 그분의 값진 씨를 모으시려고,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제단 위에 사람들과 열방들을 희생하신다(사 43:1-5). 이것이 그분의 뜻의 신비이며(엡 1:9-11), 이것이 경배와 찬양의 이유이다(롬 11:33-36).

별과 촛대의 신비(계 1:20)는 복음 전도자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들에 대하여 말한다. **일곱 황금 촛대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다.** 그것은 일곱 개가 있으며 - 항상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신다(마 18:20). 그분이 그분의 교회들 가운데 걸으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다. 교회들은 그분에 의해 세워지고, 그분에 의해 공급되며, 그분에 의해 통치된다. **일곱 별들은 교회들의 목자들이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전갈자(천사들)이다. 그분의 교회들 가운데 그분의 전갈자들을 두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전갈자들은 그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불법의 신비(살후 2:7-12)는 계시록 17:5 안에서 바빌론의 신비로 불려진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기만, 아르미니우스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기만들을 가리킨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토록 사악한 종교를 허락하셨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왜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널리 퍼졌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혼란케 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남녀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기만을 보내시고 그들을 저주 받을 방탕한 생각으로 넘겨주신다(살후 2:11-12). 이 시대의 이단들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와 구별될 수 있다(고전 11:9). 그리스도의 양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낯선 자를 그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요일 2:19, 20, 27).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종교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그들이 영원히 택함 받았기 때문이다(살후 2:13-14).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이 세대 위에 임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부도덕, 마약, 낙태 혹은 에이즈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위에 임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이 시대의 사악한 자유의지와 행위의 종교이다. 교황제도의 보편적 용납이 개혁에 앞선 어둠의 날들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타락을 가져왔고, 따라서 자유의지주의의 일반적인 용납은 이 세대에 타락을 가져와버렸다. 인간이 행위의 구원의 종교를 품는 어디든 어느 때든 타락과 부도덕이 따른다!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는 우리 앞에 있는 복된 소망이다. 조 소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회의론자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종교적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구시대”, “비지성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비웃는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비웃음 받는 것 그대로를 믿으며 신성한 진리의 옛 과정 속을 걷는다. 우리는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과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승리를 말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모두 잠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자들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아직 있는 자들 모두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거룩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모두 승리할 것이다.

2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16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바울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역주: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라고 말 할 때, 그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1. **복음의 교리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때때로 “경건”이란 말은 계시된 진리의 전체 몸을 가리키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들은 명백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이고,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도 명백하게 계시되고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것에 대하여 어떤 사리에 맞는 논쟁도 일으킬 수 없다.” 하지만...
2.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와 거듭남의 은혜로가 아니고선 어떤 사람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전 2:14; 고후 4:5-6). 복음이 그에게 그리고 그 안에 계시된 자들에게조차도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남아 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3. **모든 참 경건의 근거와 동기는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인격과 역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일반적으로, “경건”이

라는 말을 사용할 때, 혹은 성경 문맥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믿는 자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희생을 가리킨다.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 곧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적 구속이 아니라 사랑의 강제력이다(고후 5:14; 요일 4:19; 3:2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자유로우며, 율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 하다(롬 6:14, 15; 7:4; 8:1; 10:4; 갈 3:13; 5:1; 딤펴전 1:9-10). 믿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정도로든지 법적 원칙에 의해 움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여섯 가지 사실들, 신성하게 계시된 복음의 진리, 인간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섯 가지 문제들을 역설한다. 이 공과에서 이 여섯 가지 선포를 우리가 검증하기 원한다. 이 믿음에 속한 여섯 가지 신비들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섬김을 고무하고 행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였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한 다른 방

법이 없었다(롬 3:24-26). 주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다(사 45:20). 만약 그분께서 성육신과 의로운 순종과 그분의 귀한 아들의 속죄의 죽음을 포함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갈 2:21; 3:21).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와 무한한 공의의 요구들이 우리 대신 만족되어야 했다. 의롭고 희생적인 죽음이 무한한 공로이며 따라서 무한한 효험을 가진 그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 죄들을 대신한 속죄가 되어야만 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대속물로서 살고 죽어야만 했다. 그런 대속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자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사망에 대한 그분의 순종의 결과는 분명하다. 이 위대한 구원자는 그분이 구원하려 오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절대 실패하실 수 없다(마 1:21; 사 42:4). 따라서 각각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복된 위로와 확신을 당연하게 누릴 것이다. 우리는 무한하게 칭찬받을 만한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있으며, 그분의 변호는 너무도 정확히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죄를 그분이 대신하여 살고 죽

으셨던 자들에게 전가하실 수 없다(요일 2:1-2; 롬 4:8). 그리스도에 의한 이 구속의 위대한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 가운데 설계되었고 계획되었고(엡 1:3-6),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갈보리에서 택한 자를 위하여 효험 있게 사들였고 얻었으며(히 9:12; 갈 3:13), 그리고 거듭남과 회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의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거절할 수 없도록 적용되었다(히 9:13-15).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체현되신 분께서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각각의 믿는 자를 위하여 성취하셨다(사 7:14; 9:6-7; 미 5:2; 요 1:1-3, 14, 18; 히 1:1-3; 10:5-10).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우리가 이 땅을 걸었던 동안, 메시아로서 그분이 요구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분께 측량할 수 없이 주셨다는 사실로 의롭게 되셨다(요 3:34). 특히 그분의 침례 때에, 그분의 공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매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비둘기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와서 계셨으며(마 3:13-17), 그래서 그분이 성취하기 위하여 오셔야 했던 요구와 임무를 입증하였다. 성령에 의해 그가 수행하였던 기적들은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요구를 정당화하였다(눅 11:20; 마 1:21). 그가 사망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그는 그에게 부여된 우리의 죄들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그는 우리

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살육 당하셨다(고후 5:21). 사흘 후 사망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의 부활은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그의 몸에 받았던 모든 죄들이 영원히 없어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 선포였다. 따라서 그의 부활은 그분의 요구를 변론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대표자와 보증으로서 공의롭게 되었다(롬 4:25).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신성하게 지명된 구원자로서 그분의 모든 요구들 가운데 그분의 택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히 2:3). 그리고 그는 구속 받은 죄인들의 구원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된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자가 **“천사들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앞서 성육신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에게 보여지셨다(사 6:1-7; 계 4:8-11; 5:8-10). 그는 성육신 때 천사들에게 보여졌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경이로움으로 압도되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3-14). 그들은 그의 기적의 수태와(마 1:18-21; 눅 1:26-35) 동정녀 탄생(눅 2:8-14)에 놀랐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삶과 그분

의 침례(마 3:13-17)와 그분의 시험(마 4:1-11)을 지켜보았다. 광야에서 그분이 시험 받으신 후, 그들은 그분을 살피기 위하여 서둘렀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공사역을 통한 긍휼의 모든 말씀과 일들을 경배로 지켜보았다. 아버지께서 그분이 한 것과 할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심을 보이셨고, 그분의 찬양 가운데 이제 그가 기뻐하는 영광의 나타남과 그분의 순종으로 받으신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산 위에서 경이로움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마 17:1-9; 빌 2:8-11). 그가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신다는 예상에 그의 아버지를 외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사람의 마음이 겿세마네에서 부숩졌을 때 천사들은 그를 보았다(그들이 굉장히 놀랐음에 분명하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가 피땀 속에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감동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기에 그 거룩한 영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심판장으로 그를 따라갔고 그의 거짓 재판과 군병의 야유적인 조소와, 그들 손에서 참아낸 치욕과, 그의 거룩한 몸을 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수치스러운 행진과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과 십자가 위에 달려지면서 그분 위에 고통이 쌓여졌던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사들은 공의와 진리의 위대한 집행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구원자의 외침을 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그분께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임마누엘이 죽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은 그분의 피와함께 하늘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을 때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분의 승천 가운데 그와 함께 있었고 영광의 왕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주권자의 우편에 앉아 기뻐 외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천국에서 그분이 그의 보좌를 취할 때,
천사장은 모든 지옥의 패배를 노래했다네!”

다음에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 구원자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이다. 이것은 실로 하나의 신비였다. 그분을 경멸하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전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들은 예언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이해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교도 어둠과 우상숭배와 미신 속으로 잃은바 된 이방인들은 결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교회와 왕국, 그분의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와 혈족과 민족과 방언으로부터 모으려고 계획하셨다. 따라서,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안에 있는 구속과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 선택 받은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성취된 구속을 들으며, 그분의 피로 인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완전한 용

서에 대하여 듣고 믿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행 13:48).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이 구원될 때까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파하기를 계속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왔을 때, 구원받은 자의 수가 택한 자의 수가 같을 때,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롬 11:25-26).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사이에 전파된 결과, 그는 **“세상 가운데 믿게 되었고 된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셨던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택한 자를 불러내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중재 방법들이 없이 그들을 부르실 수 있었다.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었다. 그분은 나귀나 바위로서 은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전 1:21). 복음 전파는 선택된 죄인들에게 대하여 명령하신 은혜로운 방법이다(롬 10:17; 약 1:18; 벰전 1:23-25). 여기 우리를 향한 자비와 겸손한 위대한 행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다른 선택 받은 죄인들이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가 되게 하도록 선택하셨다(고전 1:26-31; 엡 3:8). 저주받은 나무 위에 들려 올려진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올려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그분 자신에게 불러오는 수단이다(요 3:14-16; 12:32).

우리의 위대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자 구원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영광 안으로 받아지신바 되었다.”** 오늘날 육신 안에 체현된 하나님이신 분이 영광 가운데 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일단 끝나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한 대표자와 선주자로서 하늘을 소유하고 계시다. 거기서 그는 총체적 주권의 모든 평안과 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다. 그는 거기서 우리의 변호자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구속을 받은 자들을 위한 그침 없는 중재를 하신다(히 7:24-25; 요일 2:1-2). 따라서, 믿는 자들은 로마서 8:33-34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위대한 도전을 자신 있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손 안

에 우주의 허리를 쥐고 계시고, 그분의 택한 자의 구원과 영원하고 영적 선을 위하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로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육신 위에 모든 능력과 통치와 권위를 주셨다(요 17:2; 롬 8:28).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확실하게 깨닫는 가운데 매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견디어 내야 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지워지는 모든 시험과 아픔과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의 혼을 위로할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그분의 모든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이다. 이 비탄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짧은 시간의 마지막에, 세상 위에서 행하신 그분의 일을 보았던 마가복음 7:37에서 언급된 자들처럼, 우리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3 믿음의 신비

디모데전서 3:9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목사와 집사의 직무를 위한 사람의 자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목사와 집사로서 안수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가져야만 하는 것보다 은혜로운 특징이다. 1절에서 7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목사의 일이 선한 일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망할만한 것이라고 말한다. 8절에서 13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집사의 일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선하고 귀한 일임과, 집사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품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사와 집사 모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만 한다.

그 말을 주의깊게 주목하라. 성령은 “신앙(faith)의 신비”가 아니라 “**믿음(the faith)의 신비**”라고 말한다. 그 부정관사 “the”는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을 구별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신앙의 은사, 신앙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믿음의 교리, 복음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에베소서 3:3-4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부른다. 혹자는 “이 신비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연합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그분의 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든 풍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William Hendriksen)고 말한다. 믿음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이다.

그것은 또한, 에베소서 6:19에서 “**복음의 신비**” 라고 부른다. 복음은 신성한 계시를 떼어 놓고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의 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없다. 어떤 유한한 생각도 영적 진리를 붙잡을 수 없다. 인간에게 있는 아무리 많은 지혜와 배움과 논리도 신성한 진리를 발견해 낼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무라도 알 수 없다.**” 그것은 계시되어야 만 한다 (고전 2:7-16). 복음의 신비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총만하고 대가 없는 구원의 복된 진리이다.

은혜의 전갈은 “삼위의 인격에 속한 교리,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의 연합에 속한, 그분의 의에 의한 칭의, 그분의 영과 은혜로 인한 거듭남, 그리스도께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그것의 신비의 교리 때문에,” “**믿음의 신비**”와 “**복음의 신비**”라고 부른다.(John Gill).

모든 목사가 그 자신의 세대에게 신실하게 믿음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집사가 그 선한 일 가운데 그의 목사를 돕는 것이 책무이다(엡 6:19-20).

믿음의 신비를 선포하며, 신실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신비를 증거하며,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믿음의 신비를 지키는 임무에 자신을 완전히 드림은 복음 사역의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의 책임이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일곱 가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신성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복음 진리의 일곱 방면들이다. 주제를 과잉 축소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이 일곱 가지를 하나의 머릿글로 제시 할 것이며, 그래서 쉽게 기억될 것이다.

죄 - “**믿음의 신비**”에서 알게 한 첫 번째 것은 죄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알 때까지 그들은 구원자를 결코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지 않으며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깨닫도록 한다. 당신은 아마도, “목사님, 누구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수하는 거다. 사실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어디서 발견되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행동과 행위에 대한, 즉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에서 죄를 생각하는 한 우리는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 깨우치고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 받지 않는 한 그 자신에 대하여 알고 깨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죄에 대하여 세 가지 것들을 가르침 받는다.

1. **죄는 그것이 천연적으로 내가 누구나라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가와 무관하다.** 죄는 배역과 불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에게 속한 적대감과 증오이다.(롬 8:7; 요일 5:10).
2. **죄는 인간의 마음을 침범하는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타락이다(마 15:17-20).** 인간의 마음은 천연적으로 “모든 것들 위에 기만적이고 지독하게 사악하다.” (렘 17:9; 롬 3:9-14).
3. **죄로 총만함은 습득되고 학습되는 본성이 아니라, 타고난 양상과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들이 되었다.(Rom. 5:12; 1 Cor. 15:21-22). 아담의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고(Rom. 5:18) 천연적인 사람

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모두가 영적 사망과 죄 가운데 출생한다(Psa. 51:5; 58:3). 출생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다. 인간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는 능력이 없다.

주권 - 둘째로,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주권 가운데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이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심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은혜를 행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계시되는 어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 그분의 섭리의 보편성(시 115:3; 135:6; 잠 16:4; 사 45:7).
- 그분의 은혜의 계획(롬 8:28-30).
- 그분의 은혜의 행사(롬 9:16).

대속물 - 셋째로, “믿음의 신비”는 우리에게 대속물의 복음 교리에 대한 계시를 준다(갈 1:3-6; 사 53:4-6).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인간 본성을 입으셨으며, 그분의 백성이 있는 가운데 사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와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속과 구원과 우리를 위한 영존하는 영광을 얻으셨다(고후 5:21; 갈 3:13; 히 9:1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과 보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시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다. 그리고 그런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보증이셨다(엡 1:3-6; 딤후 1:9). 그분은 사람으로 땅 위에 사시는 동안 모든 것에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의 대표자셨다(롬 5:19). 그분은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대속물이셨다(고후 5:21). 그분은 오늘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총만이시고 중보자이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대속물이다(요일 2:1-2). 그분은 심판의 날에 여전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께 전가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 대신 정죄 받고 계시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속 받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분의 의를 갖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받아들여 지고 축복 받으며 서 있을 것이다(렘 50:20; 계 21:27; 22:11).

만족 - 넷째로, “믿음의 신비”는 또한 우리 구속자에 의해 만들어진 죄에 대한 만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확신한다(롬 3:24-26; 갈 3:13-14; 사 45:20; 요일 1:9). 거룩하고 공의롭고 참이신 하나님

은 그분의 의의 만족함이 없이는 죄인들을 결코 구원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물께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의에 모든 요구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생명으로 행한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영존하는 우리의 의 안으로 옮겨졌다(요 17:4). 죽음으로 행한 그분의 순종으로 신성한 공의에 진 우리 모든 빛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

구원 - 다섯째, “믿음의 신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총만하고 대가 없는 구원의 계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자기 의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구원이 어떤 정도로 사람의 자유의지와 행위에 따라 제한된다고 믿는다. 그것이 모든 잘못된 종교 가운데 혼합된 자유의지와 행위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다. 다음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간단히 읽기만 하고 영적 진리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 구원은 그리스도께만 있다(엡 1:3-6).
- 구원은 은혜로만 있다(엡 2:8-9).
- 구원은 대가 없고 조건 없다(롬 9:11-16).

-
-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총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골 2:9-10; 고전 1:30).
 -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행 16:31).

항복 - 여섯째, “믿음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특별한 교리적 진리의 용납보다 더한 것이다. 그것은 주로써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다(눅 14:25-3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시간과 영원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과 처분에 나의 삶과 몸과 혼과 영을 위임하는 것 이상 더도 덜도 아니다.

결속 - 일곱째로, “믿음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죄인들의 실질적이고 영원한 결속을 계시하고 행하도록 한다(엡 3:6; 골 3:10-11). 그리스도 안에서 천연적으로 원수들이나 사람들, 다양하고 다른 문화와 인종과 사회계층에서 온 사람들이 한 가족, 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계획 안에서 연합된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공통의 사랑(그리스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게 하고 섬기게 만드는 공통의 목표(하나님의 뜻과 영광)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구별을 녹여버릴 공통의 기업(하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붙잡고 계실 것을 얻었을 때,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진실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

다. 우리는 그 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헌신의 영원한 체험과 기쁨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복음의 신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신비이다.

1. 죄(Sin) - 인간의 타락!
2. 주권(Sovereignty) - 하나님의 특성!
3. 대속(Substitution) - 그리스도의 보증!
4. 만족(Satisfaction) - 은혜의 기초!
5. 구원(Salvation) - 은혜의 역사!
6. 항복(Surrender) - 믿음의 성향!
7. 결속(Solidarity) - 그리스도 안의 믿는 자들의 연합!

4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에베소서 5:30-32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
라.” 그것은 낭만적인 소설이나 시적 과장의 말씀이 아니다. 오히
려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피로 인한 구속만큼
이나 심오하고 신비로운 사실로, 논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의 표현
이다. 그러나 이 신비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
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서 우리 구원자의 두 본성의 연합
처럼 실재적이고, 영존하며, 심오한 연합이 있다. Spurgeon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 놓았으며, 죄가 했던 타락 안에서 그
리스도께서 세상 전체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재적인 연합 안
으로 우리와 그분 자신을 연합하셨다. 이 연합은 매우 가까우며 매
우 귀하고 매우 완전하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와 매우 가깝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소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아
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완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
(골 2:9-10). 이 연합은 너무도 놀라워서 연구하면 할 수록 속고하

면 할 수록, 그것에 더욱 놀라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오 두려운 연합, 견고하고 강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노래가 얼마나 달콤한지,
땅에 속한 그 벌레들이 그랬으리라,
성육신의 신성과 함께 한 자여!”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네;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있네!

하나님께 귀하고, 너무도 귀한,
더 귀할 수 없네;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분처럼 귀하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 많은 비유 아래 제시된다. 너무나 갈망하는 것은 성령께
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한 이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그

것은 건물과 그 기초의 연합에 비교된다(엡 1:20-22). 건물이 기초에 달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건물이 그 기초에 정합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정합 된다. 건물과 기초가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백성도 서로 붙어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에 비유하며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요 15:1). 그것은 생명에 관련한 살아 있는 연합이다. 가지들이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양분을 받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됨으로 믿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영적 생명과 양분을 받는다. 그분은 진실로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다(골 1:11). 이 생명의 연합은 또한 열매가 총만한 것이다(갈 5:22-23). 그리스도께 연결된 모든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열매-그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들은 열매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쁨, 그리고 사람을 향한 평강, 오래 참음, 관대와 선함, 그리고 믿음, 온화와 절제가 있는 모든 성품들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발견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된 백성 사이의 이 연합은 **법적인 대리인과의 연합**에 비교된다(엡 1:6; 2:6).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법적 대리인의 수락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

나님께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과 대리인으로서 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 졌다(롬 5:18-19; 고전 15:21-22).

아마 믿는 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주어진 가장 놀랍고 신비하며 경이로운 그림은 남편과 그 아내에 관한 것이다(엡 5:23, 30-32).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있는 법적 연결고리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부부관계로 인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한 그들의 깊고, 자기부인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서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모든 것에서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연합된 사람들인가? “우리”라는 작은 단어를 주목하라. 노아의 방주의 문처럼, 어떤 것을 들여놓고 어떤 것을 밖에 두고 닫는다. 그 말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사용된 것처럼 “교회,” “택한 자,” “구속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믿는 자,” 그리고 “성도들”과 동의어이다.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택하셨으며, 구속하셨고, 거듭나게 하시며, 보존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온전케 하실 “교회”이다. 바울이 25절에서 32절까지에서 어떤 지역 교회나 종교 교파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할 것이

다. 성령은 이 장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에게 대한 약속들을 선포하고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 곧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신부인 우주적인 교회를 위하여 하셨던 것과 실패하지 않고 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지역 교회나 특정한 교파에 적용하는 것은 구원을 그 교회나 교파에게 연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자. 조심스럽게 읽어라. 거기서 당신은 사도가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할 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3절).
-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4절).
-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백성(5절).
-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백성(6절).
-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은 백성(7절).
-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백성(7절).
-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 세상과 하늘 위에 있는 백성(13절).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곧 한 교회, 한 왕국, 한 가족이다(엡 3:15; 히12:22-24).
-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14절).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이 창세기 2:21-24를 인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말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가리키며 처음 한 말이었다. 아담이 이 말을 할 때 무슨 뜻이었는가? 그것은 정확히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좀더 영적이고 강력한 의미 안에서 이다.

그것은 분명 본성의 유사성을 내포한다. 아담은 그와 하와가 같은 본성에 속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원에 있는 단순한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남자와 같은 종족과 본성과 품성에 속한 사람, 한 여자였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골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본성에서 하나임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요 1:1-3, 14).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벧후 1:4; 골 1:27). 믿는 자는 그분이 죄를 대하여 분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사랑에 의해 격려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다.

우리 구원자와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한 비유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나는 아담이 그가 만약 하와

가 그를 떠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것을 생각했는지를 말했을 것이라는 것에 의혹을 갖는다. 그녀는 그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모든 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 - 혼인- 속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오늘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낙원의 축복이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살고 사랑하며 지속하는 연합이다. 그것은 우리 종족의 신성함이고 행복이며 평안을 위하여 의도되었다. 하지만, 혼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의 관계에 대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다.

본문의 말씀은 좀더 깊은 것에 적용된다 - **신비로운 근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신성한 계시로 그녀가 그의 옆구리에서 취해졌음을 알았던 것 같다. 따라서,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옆구리의 흉터를 쓰다듬으며, 그는,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므로, 그녀를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나의 뼈 중의 뼈이며, 내 살 중의 살이다.”**라고 했다. 아담이 깊은 잠이 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와가 그의 뼈에서 취해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 손으로 직접 사망에 놓였으며 땅에 묻힘으로 그로써 그의 교회가 그로부터 나게 되었다(요 12:24).

이 비유는 또 **사랑의 소유**를 제시한다.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라고 말할 때, “그녀는 내

게 속한다. 그녀는 내 소유, 내 책임, 내 보물이다.”라고 선포하였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육과 그분의 뼈의 지체들**”임을 선포하실 때 그는 우리가 그분께 속한 것임을 알기를 뜻하신다(고전 6:19-20). 우리는 세상이나 혹 우리 자신에게 조차 속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만 속해있다.

“이루었다, 위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그는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를 따랐네,
그분의 신성한 목소리 고백하게 하였네.

하늘 높은 곳, 나의 굳은 서약 들었네,
나의 서약 새롭게 되고 매일 들리네,
생명의 마지막 때까지 나는 예배하네,
사망 가운데 축복하는 구속은 너무도 귀하네!”

혼인의 비유는 **생명이 걸린 필요 연합**을 보여준다. 생명의 연합은 분명 있어야 하는 연합이다.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결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 연합은 우리에게 생명이자.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그리

스도께도 생명이다.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자로서, 그분의 중재자의 능력 가운데, 그는 우리가 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 각각이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엡 1:22-23).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의 덕으로 무엇이 보장되는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우리는 그분의 실패 없는 사랑의 대상들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분의 지속적인 보살핌 속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몸의, 그분의 살의,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라면, 그분은 어느 날 우리를 죄의 흠이나 결점의 주름이나 죄나 약함이나 흠과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그분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실로 하나라면,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영광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롬 8:17; 요 17:5, 22).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데,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 보좌를 잡으시면,
그분의 지체들도 거기 두실 것이네!”

이것은 실로 커다란 신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칭의 이다(빌 2:8). 그분의 속량이 우리의 용서 이다(엡 1:7).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거듭남이다(요 5:20).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성화이다(히 10:10, 14). 그분의 찬양이 우리의 보 존이다(히 6:20).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승리이다(롬 8:34). 그분의 보상이 우리의 영화로움이다(요 17:24).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골의 지체들이다.”**

5 섭리의 신비

로마서 11:25-33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공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공휼을 통하여 그들도 공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눈멀고, 거둬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비이며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혜와 현명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의 영에 의해 계시된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엡 1:9-10).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그분 자신 가운데 계획하셨으며, 그 뜻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죄인들의 구원하심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라:

-
1. 하나님의 뜻인 삼일 하나님의 계획과 기뻐하심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택함 받은 죄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다(요 6:39-40; 히 10:7, 10).
 2.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택한 자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통치이다. 섭리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주에 속한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지시하신다는 사실이다(롬 11:25-33; 엡 3:3-11).

섭리의 신비에 대하여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라.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신성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그분이 이방인들에게 빛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임과(25-26절)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둠으로 그분께서 이방인들로부터 택하신 자들 위에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33-36절) 말해주고 있다. 우리도 역시, 만약 그것의 경이로움과 크기와 은혜를 이해한다면, 그럴 것이다.

섭리의 경영 -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 네 가지 전혀 다른 관점들이 있는데, 네 가지는 세상의 통치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다.

첫째, 혹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불리는 어떤 고정된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자연적 근거 위에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도 믿기를 거부한다. 그들이 믿는 것의 근거는 현미경 아래에서나 시험과 혹은 가설 가운데 발견된다. “가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추측이다.

둘째,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혹은 단순한 일치로 일어난다고 상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을 대단히 믿는다. 그들은 확실하고, 확정되고,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한 가지 사건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쟁자들인 그들이 생각하는 세 여인을 흠모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의 탓을 돌리려 하는 것 같다: “여자 운,” “불운,” 그리고 “대자연” 이다.

셋째, 선택한 가짜 지식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선택하고 비인격적인 세력에 의해 통제 받는 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였을 것이다. “Star Wars”라는 영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이용한 이름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기라고 불렀다. “기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이 축복에 대한 Star Wars의 생각이었다!

넷째,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의 관리자, 주인,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시 135:6-13; 사 40:12-17).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총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통치 받는다고 확증하고 주장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방법이 있으시고 도처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 이 사실에 있어서 오직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세상을 움직이시기 원치 않아서 이거나, 세상을 움직이실 수 없기 때문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분이 그분이 직접 하는 일을 포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이다(엡 1:11; 히 1:3; 골 1:17).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을 통제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바로 신격에 대항하는 말이다! “**그분은 능하시다**”는 성경을 통하여 구속 받은 자의 불변의 찬양이다. 그분은 옮기실 수 있다(단 3:17; 6:20-22).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단 4:37). 그분은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다(빌 3:21). 그분은 은혜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지킬 수 있으시다(히 7:25; 딤후 1:12).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히 2:18).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약 4:12).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우주 통치를 부인하는 자들은 경배의 바로 그 기초를 파괴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혹은 세상을 통치하실 수 없다면, 기도는 소용 없는 것이다! 왜 흥미도 없으시고 세상의 일들에 관여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우주의 통치는 하나님의 일이다.

섭리의 신비 - (사 55:8-9; 롬 11:33). C. D. Cole은, “하나님의 섭리가 유한한 생각에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섭리는 신비하며 복잡하고, 따라서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취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벌통에서 들락날락하는 벌들의 비행에는 전혀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벌꿀과 벌집을 조사해보면 그 벌들이 계획과 배열과 정확한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이로움을 행하시기 위하여 신비롭게 움직이
신다;

그분은 바다에 발자국을 심으시고 폭풍 위에 임하신다.

결코 실패 없는 기술의 알 수 없는 광산 깊숙이
그 빛나는 계획의 보물로 채우시고 그분의 주권의 뜻을 행하신다.”

섭리의 섬세함 - 하나님의 우주 섭리 법칙은 문제와 시간과 역사의 모든 세밀하고 얽힌 것들을 능가한다. 그것은 모든 사소한 것들을 포괄한다. 혹자는, “섭리는 도처에 집중된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말했다. 너무도 세밀하고, 너무도 섬세함이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계수(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결정하셨다)하셨으며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의 머리털을 계수하셨던(마 10:30) 섭리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법칙이다. 어떤 참새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없이 작은 낱알이나 죽음을 향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마 10:28-29). 눈 같은 보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대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미리 정하신 길을 따라 땅위에 흩어진다(욘 38:22). 제비를 뽑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있어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방법이 있으시다(잠 16:33).

섭리의 크기 -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크기가 있다. -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이로다.”(나 1:3). 당신은 그 그림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경배 드리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만물을 절대적으로 항상 통제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 없는 것들을** 통제하신다. 홍해의 물이 그의 명령으로 갈라졌다. 고라를 집어삼키려 땅이 열림도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였다. 바벨론의 불타오르는 용광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들을 태워버렸지만, 그분의 종들을 태울 능력이 없었다. 햇별과 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넉넉하게 뿌려지기도 거두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이성 없는 피조물들을 통제하신다. 땅에 속한 동물들은 이름을 짓기 위하여 아담에게 데려왔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하기 위하여 데려왔다. 발람의 나귀는 전능자께서 나귀에게 **“발람에게 말하라.”**고 하셨을 때 사람의 언어로 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파리 떼가 이집트 위를 뒤덮었으며 개구리들이 군대처럼 땅을 점령하였다. 주께서 계획하셨을 때, 바벨론에서 사자가 다니엘과 함께 어린양처럼 잠들었다.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종 요나를 삼키도록 특별하게 예비되었으며 그를 니느웨에게 직접 데려간다. 주께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후

에 닭이 두 번 울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노래함을 기뻐한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 103:20).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신다. 바로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행동하였다(롬 9:16-18). 유대인, 빌라도, 그리고 로마인들은 더도 덜도 아니게 그분의 귀한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확히 하도록 해야 했다(행 2:23; 4:27-28). 우리의 세상 통치자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그대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해야만 했다(잠 21:1).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할 수 없었다(삼후 16장).

심지어 마귀 자신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까지만 움직인다. 그는 욕을 괴롭히거나 베드로를 체질하는데 있어서 우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죄는 어떤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죄를 지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지만, 그분은 그것의 통제자이다! 시편 76:10을 읽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악함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악하게 되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선함을 위하여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지배하시기 기쁘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을 행하도록 사악한 자 조차 허락하실 것이다(창 20:6).

하나님의 섭리의 경이 - 섭리가 작용하게 하는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택하신 자를 향한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롬 8:28-30).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을 제외하고 그분의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것은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존귀를 제외하고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지 않을 것은 없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을 희생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희생하실 것이다(롬 8:32; 요일 4:9-10).

어리석고, 감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분별없고 보편적인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대한 사랑은

선택된 자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나라들을 희생하셨고 여전히 희생하시는 그런 특별하고도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친다(사43:1-7).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주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는 없다(잠 12:21).

섭리의 체현 (계 5:11-14). 존재해야 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모든 택한 자가 구원 받았을 때, 그리고 모든 버림받은 자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을 때,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잘 이루셨는지 의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보이실 것이다.

“하늘의 주권적 통치자여! 영원히 영화로우시며, 영원히 지혜로우시도다!

나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으며, 모든 사건들은 당신의 명령에 있나이다.

땅을 만드신 그분의 명령, 나의 첫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을 확정하
셨도다;

부모, 출생지, 시간, 모든 것이 그분으로 예정되었도다.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이가, 무덤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나의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지혜로운 명령으로 차례대로 있을 것
이라.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가난하고 부유할 때도,
시험에 들 때도, 슬플 때도, 승리하고 안도할 때도!

사단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나의 구원자의 사랑을 맛볼 때도,
나의 하늘의 친구가 기뻐하듯, 모든 것은 와서 지속되고 마쳐야 하
네.

전염병도 죽음도 나이 주위를 맴도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다 생각하실 때까지 어느 것도 나를 찌를
수 없네.

오 영화로우며, 지혜로우며, 의로운 당신, 당신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여전히 더 소중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에 그것을 맡깁니다.

내가 언제나 당신의 손길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행복에 선다면,
당신만을 하나님으로 알며, 나와 나의 것은 모두 당신의 소유.

언제나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소유함은, 내 가진 모든 것;
내가 당신과 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잃어 버린바 될 수 있습니까?

--John Ryland

6 별과 촛대의 신비

계시록 1:20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

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일곱 교회들과 그들의 목자들은 모든 참 복음 교회들과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의 상징이고 대표자이다. 역사적으로, 이 장에서 언

급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 동안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우화적 대표들로서 사용되고 있다. 별들, 교회들의 목자들은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을 대표하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있는 목자들이다.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대표한다. 별들과 촛대들의 신비는 가르침으로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적용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그분의 교회들이 계속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호되고 공급받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 종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며, 그들은 우리에게 의해서 높이 인정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 안에 남녀가 모이는 곳에 지역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지역 교회는 신약에서 그 용어의 의미는 구원 받은 죄인들의 회중이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연합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왕국의 유익들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양떼를 찾으며,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고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 교회 위에 주실 수 있고 주실 가장 큰 축복이 그분 자신의 마음을 따라 목자,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지식과 이해로 그분의 백성을 먹일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렘 3:15).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승천 선물들이며, 그분의 택한 자의 회심과 가르침과 교육과 확고함을 위함이다(엡 4:18-16).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위하여 알려지고, 사랑 받고,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살전 5:12-1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에 의한 보살피심을 신뢰하는 혼을 보살피는 자들로서 순종하여야 한다(히 13:7, 17).

나는 각각의 믿는 자의 생활의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대중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라는 것을 또한 단언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히 13:24-27).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사역하며, 그들로 경배 받기로 약속하셨던 곳이 그곳이다(마 18:20). 대중 예배가 경시되고 의도적으로 무시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배교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삼상 8:7).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져가는 것이다(고전 3:16-17).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의 종들에게 행해진 것이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그분 자신에게 행해진 것처럼 여기시고 그분의 종들 위에 그런 높은 가치를 두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해진 것이 나쁘든지 혹은 좋든지 그분께 행해진 것처럼 여기시고 그분의 백성들 위에 그와 같은 높은 가치를 두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여야 하며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인 그들의 목자를 대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일곱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각자의 천사, 사자(使者)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는 칠이라는 수가 은혜의 수, 거룩과 성취와 완전의 수임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우리 주의 계획을 충만케 할 필요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지역 교회들이 언제나, 더도 덜도 아니게 있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곱 교회들로 대표된다는 것을 수용하여야 한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른 손에서 보았던 일곱 별들은 천사들 혹은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 두 번째 오심까지에 있었던 교회의 목자들과 사역자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오른 손 안에 있다 (16절). 그들은 주님께 의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배치되며, 그분 에 의해 보호받고, 그분에 의해서 공급된다.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권위와 감독 하에 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수중에 있는 도구들이다.

신실한 목자들은 여기서 별과 천사들에 비교 된다. 전도자들 같은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전도자들 같은 별들은 어둠의 한 복판에 빛을 준다(고후 4:4-6). 별들과 같은 참된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불타고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는 불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렘 20:9). 모든 참된 목자는 그분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역자이다. 그는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에게 사역하도록 보내졌다. 신실한 목자는 사자, 곧 그가 전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전갈을 갖고 보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갈은 항상 동일하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신실하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인들의 회심 가운데 기뻐한다.

교회들이 없는 천사들은 없고 천사들이 없는 교회들도 없다는 것도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사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언제 어디서든 그분의 교회가 전도자를 필요

로 하며, 그분은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 하지만, 그분이 필요로 하실 때까지는 결코 전도자를 세우지 않으신다. 한 연로한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나무를 만들지 않고 주머니쥐를 절대로 만드시지 않는다. 그분은 설교단을 만들지 않고 설교자를 결코 준비하시지 않았다.”

각각의 참된 지역 교회는 하나의 촛대이며, 빛을 가진 자이고, 그로부터 빛이 발하는 중심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역 교회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흑암과 사망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함이다. 지역 교회들은 빛을 창조하지도 못하며 그 빛을 더 낮게 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단순히 그 빛을 밖으로 발산할 뿐이다.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는다. 촛대는 그 안에 빛을 넣지 않으면 더 이상 빛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시다. 우리는 지키고 가르치고 확장하여 진리의 빛(그리스도의 복음)을 발산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흠이 없도록 지킬 수 있는 순수한 빛을 발한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인 마음 속에서 체험된 그분의 사랑의 결과를 드러내 보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사랑의 빛을 발한다. 각각의 지역 교회는 그 위대한 가치를 표출하는 “황금 촛대”라 불린다.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리고 시온에서 공표하신 주의 말씀을 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며, 황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참된 복음 교회들은 그리스도, 곧 그들 가운데 계신 분과 연합한다. Alfort는 “그들의 상호 독립은 완전하다. 그들의 유일한 연합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그분 안에서 이다.”라고 썼다. 비록 지역 교회들은 교파적 제휴나 영향이나 제약이 없이 독립적이지만, 그들은 다른 복음 교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 각각의 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머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각 교회와 각 개개인 믿는 자의 책무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가족, 한 왕국, 한 몸, 한 거룩한 나라이다(고전 10:17; 12:13; 엡 2:19-23; 3:15; 4:1-6; 벧전 2:9). 각각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가지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권위의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각은 일한다. 각자는 같은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은 하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 받는다.

이 세상에 있는 지역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각각은 그 자신의 뛰어남과 그 자신의 문제와 그 자신의 위험과 그 자신의 의무

가 있다. 고린도, 갈라디아,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그들만의 특별한 약점과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 자신의 잘못과 실패들이 있었다. 한 지역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그들의 충성의 가치를 찾는 그들 초종교인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들이란 없다. 교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용서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들처럼 많은 뛰어남을 가진 진실한 교회들이다. 그 교회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곳은 주께 충성되며, 다른 곳은 주저하는 것을 본다. 한 곳은 불 위에 있고, 다른 곳은 그 첫 사랑을 잃는다. 한 곳은 비록 그 곳이 죽었지만 큰 평판을 받는다. 다른 곳은 비록 그 곳이 은혜 가운데 매우 부요 하지만, 엄청난 가난 속에 있다. 한 교회는 생명의 충만 가운데 있지만, 어떤 곳은 죽어 있다. 대부분 사망한 교회들 가운데, 어떤 곳은 생명이 충만하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은 배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배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배를 구하고자 힘을 모은다. 참된 복음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유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복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선포하지 않을 때이며, 더 이상 복음의 빛을 발산하지 않을 때이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분의 교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다. 그분이 일곱 황금 촛대들의 한 가운데를 걸으시는 것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소리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필요들을 은혜롭게 채우시기 위함이다.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라고 계시하시는 것은 관찰하고 바로잡기 위함이다. 서머나 교회에 그분은 "살아 있는 이"로서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이다. 버가모 교회에 그분은 "날카로운 칼"로 오신 것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모든 것을 교회로부터 갈라놓고 죽이며, 나누어 버리고 파괴하기 위함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찌꺼기를 없애 버리기 위함이다. 사데 교회에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은 영적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시며 깨어나게 하고, 살리며,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보화들을 신실한 자들에게 열어주기 위함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분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이심은 교회의 교만과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불러내며, 그분의 타락하고 쇠약해지는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고치려 함이다.

그분의 교회들 한 가운데를 거니는 주 예수는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다. 하지만, 그분은 각각의 지역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신실함과 충성과 인내를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대하고 요구하신다.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들 중 어느 하나도 그 백성들의 역경과 시험들이 느슨하고 하찮으며 포기가 정당화 되는 것을 상상할 아주 작은 이유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 반면에, 우리 주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충분함을, 그분의 사랑이 불변함을, 그분의 신실하심이 확실함을, 그분의 중보가 이김을, 그분의 손이 강함을 확신시키고 있다. 당신의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더 크다. 당신이 그분께 꼭 붙어있는 한 당신을 격려하실 것이다(고전 10:13).

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불충성에 따라 축대를 보존하시기도 제거하시기도 할 것이다(계 2:5).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벧전 4:17).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 신실하지 않음을 지적하실 때, 그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행하실 것이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버리실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진노 안으로 우리를 쓸어 버리실 것이다. 어떤 참된 교회도 그리스도께 냉담하지 않다면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만약 어떤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잘 보존되고 보존하고 있

다면, 각각의 지체는 순종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훼방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별들과 촛대들의 신비이다. 별들은 하나님의 지명된 목자들이다. 촛대들은 복음 교회들이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의 보증이 그리스도 만의 역사인 반면, 교회의 성공이나 실패, 생명이나 사망은 각 지체의 책임이다(계 3:19-22).

7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후서 2:7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바울이 말한 “불법의 신비”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계시록 17:5에서 말한 것이다. 불법의 신비와 바벨론의 신비는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사악한 영향인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에 임할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큰 신비는 계시된 것 안에서 상황 가운데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가르친 것과 별도로 이해될 수 없다. 그 장의 열일곱 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며, 각각의 믿는 자가 이해하여야 할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는 다섯 가지 사실들이 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1-2절).**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두 번째 오심과 그 마지막 날에 그분께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모으실 것(살전 1:10; 4:13-17)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할 믿는 자의 책임(살전 5:1-11)에 대하여 그들과 우리에게 확신 시키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서신을 썼다. 그러나, 어떤 자는 바울의 가르침과 서신들을 왜곡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말씀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는 선언을 하며 바울로부터 새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길어야 수 일 내에, 수 주 안에, 혹은 몇 개월 안에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며 그들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괴롭혔다. 데살로니가의 이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다고 상상하지 말라. 그들은 있었다(살전 1: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시간 계획 내에 분명히 오신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매일의 책무들과 관계

에 대하여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주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에 소망하고 기대하며(딤후 2:13)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반면, 아무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마 24:36; 막 13:32; 행 1:7).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 때를 일반적인 의미로도 언제인지 성경 안에서 가리키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 그분의 오심의 표적들을 찾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지속적으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배운다.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알지 못함으로, 주께서 다음 이천 년 동안에 다시 오시지 않을지라도 살아가고 수고하며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아직 이 땅에서 그것을 듣고 있다...

2. **두 큰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앞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이다(3-10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에 앞서 일어날 것은 물리

적 표적들은 없다. 나라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영적 중요함이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이스라엘이고 그분의 성전이다(고전 3:16-17; 갈 3:29; 6:16).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직전의 때를 가리키는 아무런 물리적, 물질적 표적은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밤에 도적처럼 오실 것이다. 그러나, 거둬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 볼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표적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부터 배도와 전체적인 이탈이 있을 것이며, 건축되었던 교회들 위에 있는 바로 그 진리들의 거짓 교회들에 의한 보편적인 부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죄의 사람이 반드시 계시되어야 한다.¹ 그는 세상에 계시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계시된다. 그가 원인이 된 배교로 그는 우리에게 계시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의 다시 오

¹ 이 죄에 속한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 체계이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을 앗아가는 모든 종교이다. 질문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가톨릭을 포함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가톨릭에 한정 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모든 형태의 아르미니안, 자유의지, 행위종교가 적그리스도이다.

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지켜진다(딤펴전 4:1-3; 요일 4:1-3; 2:18; 살후 2:7).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종교의 체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그는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불법의 종교이며 권위에 대한 대역의 종교이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라고 불려진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이런 종교의 체계는 모든 자유의지, 행위 종교이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높인다(4절).

세상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큰 종교적 기만은 현대, 자유의지, 행위, 결심의 종교이다. 그것은 이미 행해지고 있다(7절).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7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8절; 계 13:18; 19).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는 너무도 인상적이고 미묘하고 속임수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9-10절; 계 13:8).

구원을 어떤 정도에서든지 의지나 행위나 인간의 가치에 좌우되고 결정되게 만드는 어떤 그리고 모든 종교의 형태는 적그리스도라는 점을 다시 반복하며 애써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그것은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 행위의 종교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부인을 요구하신다(고후 6:14-7:1; 계 18:4).

3. 이들 두 개의 큰 사건(교회의 배교와 죄의 사람의 출현)은 타락한 백성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다(10-12절).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벌(永罰)을 자초한다(잠 1:23-33). 그리고 멸망과 영원한 파멸에의 가장 확실한 길은 거짓 종교이다(사 28:14-20). 물을 필요도 없이, 이들은 영적 기근의 날들이다(암 8:11-12). 종교는 도처에 있지만, 영적 진리의 빵과 물에 대한 기근이 있다. 이단과 배교, 거짓 종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혐오스럽고 비열한 종교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서 나타나게 된다(고전 11:19). 그들은 자유의지와 행위 종교에 의해 속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양은 어떤 형태의 아르미니안 주의의 낯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행위 종교의 구덩이 속으로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간음의 포도주로 세상에 독을 퍼뜨리는 자인(계 18:1-4) 낯선 여자의 유혹하는 목소리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잠 7)

4.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배교와 죄의 사람에 의해 속거나 멸망 될 수 없다(13-14절).** 13-14의 복된 말씀을 처음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회중이 외치는 기쁨의 소리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14)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두 절에서, 바울은 인침 받고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숫자가 144,000이라는 것을 기술한다. 여기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가 경험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다섯 가지 방면이 있다.

- 택정 -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당신을 택하셨다!”
- 중생 -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구원.”
- 신앙 - “진리의 믿음”
- 효험 있는 부르심 - “거기에 그분께서 우리 복음으로 당신을 부르셨다.”
- 영화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는 세상에 속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살전 5:9).

5.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 장의 결론을 이 어둡고, 어두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소망의 날들이며, 견고하고 인내심 있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자들 가운데 외쳐 요구하라고 말하면서 내린다(15-17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왔던 전통과 가르침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15절; 딤후 1:9-13). 모든 세상이 우리 믿음의 바로 그 기초 위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지만 (완전한 타락 - 무조건적 택하심 - 한정된 속량 - 거부할 수 없는 은혜 - 성도들의 인내), 우리는 그것들을 들어 올리고 그것들을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도 시대 한 가운데에, 그리스도 만을 구원자요 주로 신뢰하는 죄인들은 은혜를 통한 기쁜 소망을 갖고 있다 (16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영원하며 뛰어난 사랑 안에 있다 (렘 31:3). 우리 혼의 위로는 우리의 보증이며, 대속물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혼을 쉬게 하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소유이다. **택정하심의 은혜로다! 구속하심의 은혜로다! 구원하**

심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알며 체험한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의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
다(17절).